

고령 수급자의 재취업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□ 7.29.(수) 이데일리, “봉사활동도 구직” 퍼주기 실업급여에 1.7조 적자

- 고령층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문턱이 다른 연령층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이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. 구직급여를 받는 고령층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지금과 같은 요건을 인정할 경우 구직급여 지출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서다.
- 구직급여는 재취업을 지원하는 목적인 만큼 고령자의 재취업 효과 등을 점검해 효과가 낮은 고령층의 수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.

2. 설명 내용

□ 정부는 고령자 등 모든 구직급여 수급자가 신속히 질 좋은 일자리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

- 이에 금년 3월부터는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도 수급기간 중 재취업 활동을 독려하고,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*이 크게 상승하였음

* 60세 이상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: ('24년) 25.3%→('25년) 24.5%→('26.6월) 32.3%

- 기존에는 60세 이상에 대해 구직외활동(단기취업특강, 자원봉사 등) 인정에 횟수 제한이 없었으나, 60~64세 수급자에 대해서는 구직외활동 인정 횟수를 제한*하여 구직활동을 유도하고

* 단기취업특강 2회, 직업심리검사·심리안정프로그램·자원봉사 각 1회까지만 인정

- 실업급여 장기 수급자가 반복적으로 구직외 활동을 하는 경우 구직활동 병행을 통한 취업활동을 적극 독려하고 있음

○ 아울러, 반복수급자에 대한 집중 재취업 지원을 위해 기존에는 1차·4차 실업인정일에만 고용센터 출석 의무가 있었으나, 이를 전 회차 실업 인정일로 확대하고

－ 1:1 상담을 통한 재취업활동 계획 작성·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실업 인정 방식을 강화하여 집중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

□ 향후에도 고령자 고용상황,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면서 취업지원을 지속 강화할 계획임

○ 특히 인공지능(AI) 기반으로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한 효과적인 취업 지원 제고, 구직활동 강화 등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임

담당 부서	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	책임자	과 장	이영기 (044-202-7368)
		담당자	사무관	정택진 (044-202-7371)

